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국비지원 확정·설계용역비 5억 반영

광주 미래산업 '탄력'

광주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전 확정하고, 관련예산 중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운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회의원총상 자원위원장의 중앙부처 설득, 새누리당 광주시당의 물밑지원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예타 통과 이후에도 추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광주시와 새누리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융합기반구축 신규사업(일반회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구축사업' 총사업비 8347억(국비 4854억) 중 사업 설계·용역비 등 5억원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오는 2021년 완공 목표이며, 자동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및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유통기초개발 등이 추진된다.

기재부에서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비 반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운장현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협업 등으로 해당 사업이 정

부의 2014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KDI측이 예타 결과 발표시기를 애초 올 7월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정 일정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미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시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4·29재보선 때 광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측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운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을 호소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국회 산하위원장이 김동철 의원(광주광산 갑)도 산자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 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 추진을 제시하는 한편 예타 대상 확정, 사업비 사전 반영 등에 주력했다.

김동철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지를 보임에 따라 예타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국비 67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예산반영에 큰 힘을 보탤다.

김운세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향후 예타 통과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Queen Bee"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박인비 메이저 3연패 ▶ 20년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 062) 605-1115

北 "당국간 대화 용의" ... U대회 흥행 기대감



교문 앞 체온측정·손씻기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1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세정제로 씻어주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젊고 건강해도 안심 못한다

지병 없는 환자 2명 사망
30대 중증환자까지 나와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나 젊은 중증 환자도 발생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2·6·14면>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

이 가운데 전발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진척 병문안을 갔다 감염돼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 이 환자는 특별한 지병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여)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

광주·전남 메르스 현황

(15일 20시 현재)

확진 환자 1명 (보성 60대)

광주 ... 관리 대상자 67명
(국가지정병원 입원 2명
자택격리 33·본인감시 32명)

전남 ... 관리 대상자 633명
(자택격리 302·본인감시 331명)

전국 감염 150명·사망자 16명
격리 5216명·퇴원 14명

나 상태가 심해진 경우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35)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는 심폐 보조기인 에크모(ECMO)를 착용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완치자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도 받았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의 메르스 관리대상자 수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확진환자 1명을 포함 70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67명이며, 2명은 국가지정병원에 33명은 자택에 격리돼 있다. 나머지 32명은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다.

전남지역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634명이 메르스 관리대상자다. 확진자(64)는 광주의 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02명은 자택에 격리돼 있으며, 능동 모니터링(본인감시) 대상은 331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우승순 신화 쓴다



광주 U대회



D-17
UNIVERSIADE GWANGJU 2015

광주시·U대회 조직위
"북한 선수단·미녀 응원단
파견 가능성 높아졌다"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흥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선수단 출전·미녀 응원단 파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21면>
더욱이 국내에서 메르스 여파로 대회 흥행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흥행카드인 북한의 참가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은 "스포츠 영역은 정치영역과 분리해야 한다. 광주유대회는 남북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북한 응원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는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광주 U대회 개인엔트리 추가등록 마감일인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북한 선수단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조직위 측은 대회 개막 전까지 엔트리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신원조회 등 대비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북한 선수단의 출전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北, 우리국민 2명 송환 통보

북한은 15일 조선직접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 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오는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인수하겠다고는 의사를 이날 오후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 대상자는 중국 여행 중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던 이모(59·남)씨와 진모(51·여)씨다. /연합뉴스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리며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되어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